

## 변화와 희망의 시대를 주도하는 21세기 문화도시 부천

부천시는 인천국제공항의 관문도시임과 동시에, 사통팔달의 교통여건과 풍부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한경인지역 공업중심도시에서 한국 최고의 문화·환경도시로의 면모를 일신하고 있는 21세기 신도시이다.

### 부천지역의 산업구조

부천시는 서울특별시의 위성도시로, 서쪽으로는 인천광역시, 남쪽으로는 시흥시와 접한 공업도시로 21세기를 맞이하여 문화도시로의 변화를 시도하는 진보적인 도시이다.

2002년 부천지역 총면적의 15.4%가 농경지로 쌀, 감자, 복숭아, 포도, 무, 고추, 토마토 등을 재배하고 있으나, 최근 공업화에 따른 도시구조의 변화로 시가지의 확장, 중동신도시개발 등으로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농경지의 토지전용이 증가하고 있다.

산업구조는 화학제품제조업(고무, 플라스틱, 유류), 금속가공업, 기계·장비제조업, 전기·전자업이 82.8%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 기계제조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하청업체인 영세한 기업으로 산업재해에 노출되어 있어 문제시 되고 있다. 산업별 근로자는 1차산업에 13%가 종사하고 있고, 나머지 87%정도가 2·3차산업인 제조업,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제조업 중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천시 전체 근로자의 2.42%인 210,000여명이 종사하고 있어 대부분이 50인 미만 제조업, 즉 안전관리의 사각지역에 놓여있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 부천, 김포지역의 평균 재해율이 1.21%로 전년 대비 0.17%p 증가한 것이고, 전국산업재해율 0.87%보다 0.34%p 높아 이 지역 산업안전의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특이할 사항은 부천, 김포지역 중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재해예방을 돕는 대한산업안전협회 부천지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업체의 평균 재해율이 0.43%로 전국 평균 재해율보다 낮게 나타나, 안전관리 사각지역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뒷받침된다면 재해율은 다른 선진국 수준 이하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지역 산업사회의 숨은 일꾼 안전인

부천은 농경산업과 공업산업이 어우러진 수도권 인근 지역으로 경인지역의 중심공업도시로 발전해 왔다. 공업도시로 발전하는데 있어 안전인으로 그 역할을 다한 한전기공주식



회사 부천지점 최상현 지점장과 주식회사 M전자의 강대기 대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본다.

## 〈〈한전기공주식회사 부천지점 최상현 지점장〉〉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피와 같은 존재는 전기일 것이다.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에 대한 정비업무를 담당하는 한전기공주식회사에 안전의 기틀을 잡은 인물이 있다. 부천지점 최상현 지점장이 그 주인공이다.

25년간 한전기공에 근무하면서 89년부터 3년간 본사 안전관리부에서 근무했던 최상현 지점장은 당시 안전업무를 수행했던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89년 우리나라의 산업안전이 취약했던 점을 고려할 때 최상현 지점장은 안전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무재해운동을 보급·시행할 때에도 최상현 지점장은 함께 했었고, 현재 한전기공에서 대부분의 안전 활동에 있어 사용하고 있는 각종 양식과 기법 개발에도 참여하여 오늘의 한전기공을 있게 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래서일까? 지금 부천지점을 대표하는 최상현 지점장은 안전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확고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내가 내 몸을 지키는 것이 곧 가정과 회사, 나아가 국가를 지키는 일”이라는 최상현 지점장의 마인드가 묻어있는 부천지점에서는 지난 2월에 무재해 5배를 달성하고, 무재해 10배를 향한 힘찬 도약을 시작했다. 예전에 무재해 10배 달성 문턱에서 작은 사고로 인해 그동안의 공든 탑이 물거품이 되어 사라진 경험이 있기에 이번 무재해 10배에 대해서는 기필코 달성한다는 각오다.

위험설비가 즐비하고, 각종 발전설비에 대한 정비의 특성상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무재해 10배가 결코 달성하기 쉬운 목표는 아니지만, 무재해 5배 달성을 기폭제로 하고, TFS를 기반으로 무재해 10배는 물론 그 이상의 목표까지 달성하리라는 것이 이곳 모두의 바람이고 마음이다.

한편 최상현 지점장은 우리나라의 산업안전에 대해서 우려의 한마디를 한다. 사람이 안전해야 수출도 증가하고, 매출도 증대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안전이 우선되어야 기업이 살 수 있는 것이라며 안전을 통한 기업과 나라의 경쟁력이 향상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업안전은 MF때 철퇴를 맞은 이후 침체된 분위기에서 회복의 기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밝힌 2003년도 예상 재해율이 0.87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동안 감소추세에 있던 재해율이 2002년을 기점으로 더 이상 내려가



▲ 최 상 현 지점장

지않고다시 상승하고있다.

이에 최상현 지점장은 이제는 우리 산업사회에서의 안전이 제자리를 찾아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위상을 재확립하여, 안전이 최고라는 분위기가 사회 저변에 확고히 깔려야 할 때라고 한다.

끝으로, 전기인으로서도 제19회 전기산업진흥추진대회 국무총리 표창까지 수상한 최상현 지점장은 평생 안전인으로 회사를 비롯한 지역 산업안전의 발전을 위해 실천하고,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남겠다는 의지를 표하며 끝을 맺는다.

## 《 주식회사 PJ전자강대기 대리 》

회사 창설 이래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기업이 있다. 생산전문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PJ전자(대표이사 김명욱)가 오늘 찾은 곳이다.

(주)PJ전자는 1989년 11월 풍전산업(주)의 SMD사업부로 시작하여 경인지역 최대 규모인 IIEA의 SMDLine을 보유한 생산전문업체로, QS-9000과 ISO 9002의 인증을 획득하여 경영 및 생산·품질관리 System과 경쟁력있는 자재구매 Sourcing Net-Work를 구축하여 국내외의 기업들에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생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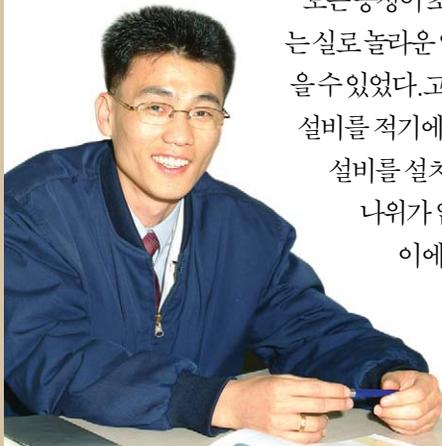
이렇게 고객의 욕구를 충족해 온 (주)PJ전자는 MF이후 매년 20%이상 성장해오면서 단 한건의 재해도 없었다.

이러한 무재해 (주)PJ전자를 이끌어 가는 PJ의 안전맨 강대기 대리를 만났다. 김명욱 사장이 책임감이 강하고 확실한 사람이라고 소개한 강대기 대리는 2003년 상공회의소에서 모범근로자로서 경기도지사상을 수상하는 등 그 성실성을 인정받기도 하였다.

이처럼 성실함이 배어있는 강대기 대리는 “사람에게 있어 신체가 상하지 않고 건강한 것이 최고”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근로자의 안전이 곧 건강이므로 (주)PJ전자는 근로자가 작업을 하면서 다치지 않게 하는데 주력한다고 한다.

모든 공정이 초고속 회전체임을 볼 때 창사이래 계속된 무재해는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는 바로 찾을 수 있었다. 고객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신의 설비를 적기에 확보하고 최고의 생산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신 설비를 설치함에 있어 최고의 안전장치가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설비의 자동화는 물론, 위험점과 근로자 사이에 빈틈을 없게 하여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에서 무재해가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근로자 중심의 안전은 “기업을 구성하는 것이 근로자이고, 근로자가 다치면 기업이 다치는 것이다”라는 (주)PJ전자의 생각에



▲ 강대기 대리

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사소한 공상재해라 할지라도 사업장에서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주)PJ전자는 대한산업안전협회의와 공조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기술지원을 받아 금년도에 분임조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선진안전화를 위해 PFS 도입을 시도하여 지속적으로 무재해를 이어간다고 강대기 대리는 말한다.

## 재난방지시스템

부천시는 부천소방서의 홈페이지 접속의 편의성 및 다양성을 위해 기존 영문도메인 접속방법에서 한글도메인과 한글인터넷주소서비스를 개시하였다.



또한, 시민이 일상생활속에서 발생하기 쉬운 각종 응급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기본응급처치법 교육인 “시민 응급처치강좌”를 운영하고있다.

이 밖에도 부천시 한국 119 소년단을 운영함으로써 학교와 가정, 나아가 지역 사회, 국가,

한글도메인 설치 프로그램 :

<http://idn.verisign-grs.com/plug-in/index.jsp?c=idnnow>

경기도부천소방서 영문도메인 : <http://www.119bucheon.com>

경기도부천소방서 한글인터넷주소 : <http://부천소방서.kr>